

“소설은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

이문열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소설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중퇴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대한민국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리문학상 수상
-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수훈장
- (현) 부악문원 대표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변경’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국민작가’, 우리 사회 부조리한 삶과 그 문제의식을 현란한 문체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이 시대의 이야기꾼 이문열을 만났다.

● ● 젊은 시절 좌절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저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힘들었다고 봐요. 다만 저는 아버지가 정치적 노선에 따라 월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홀어머니와 5남매가 힘들게 살았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16년을 배우는데 저는 8년을 학교를 못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8년이란 시간을 따로 보낸 거지요. 집안의 막내라 생계를 책임져야할 위치는 아니기에 학교를 못 다니는 대신 일을 해야하는 처지는 아니었지요. 하루종일 빈둥거리면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혼자서 책 읽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만화나 잡지 등 닥치는대로 보다가 점차 소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된 것도 그 때 영향이 컸을 겁니다.

● ●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셨는데, 처음 문학에 눈을 뜨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학창 시절에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글을 잘 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인들이 수사학을 연마했듯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요. 18살때까지만 해도 문학을 하려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책을 많이 접하면서 도구로서의 언어 감각을 키워나갔어요. 남다르게 수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소재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말의 대상력을 키우기 위해 별 의미없는 소재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어요. 소설을 쓰기로 마음 먹은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럼에도 소설가로서 조금 늦은 나이에 입문을 했던 것은 비유하자면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산거라고 보여져요.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 급하게 옷을 걸쳤는데 안 맞아서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옷도 안 맞아 다른 옷을 입다가 결국 소설가라는 옷을 제대로 찾아입은 것이지요(웃음).

●● 그동안 많은 작품을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흔히들 그렇게 물어보면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간다고 답할 거예요. 그 이유는 가장 최근 작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품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근래에 같은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최근 ‘변경’(편집자 주 : 전 12권으로 1998년에 완간된 사회소설.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의 풍경을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2003년에 미국에 있을 때 절판을 했는데 ‘변경’을 다시 보고 싶다는 독자들도 있고 제가 40대 후반을 다 바쳤던 작품이라 애착이 갑니다. 앞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변경’이라고 답해야겠어요(웃음). 작품 양도 많고 힘들었지만 나름의 성숙함이 묻어나고 자전적 요소도 있고 진솔함도 있어 지금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 이문열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아닐까하는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일종의 알레고리(Allegory) 소설이에요. 1980년대 저는 이렇다할 비판이나 저항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항변을 안한 이유는 당시 권력자가 단임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호헌조치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지요. 호헌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인데 저로서는 난처한 심정이었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할 수 없었고 제 기분이랄까 표현하고 싶어 그 당시 상황을 소설로 작품화 한 것입니다.

●●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도 입고 때론 오해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요.

2000년 초중반에 인터뷰를 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인터뷰에서 한 말이 앞뒤가 잘리거나 한 마디만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친일파’로 낙인찍히기도 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동아 공영권’ 관련 보도였지요. 1990년대 초반에 유럽공동체(EU)나 나프트(NAFTA) 등 경제 공동체가 세계 각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때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한중일 3국의 연륙제인 ‘베세토’가 있었어요. 그 때 동아일보, 인민일보, 아사히신문이 함께 주최한 회의에서 한국 문학 파트를 맡아 회의를 한 적

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이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 아니냐. 이렇게 3국이 모여서 다른 지역 공동체와 대응을 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80년 전에 3국 관계를 잘못 다뤄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니냐.’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앞 뒤 다 자르고 ‘이문열, 대동아 공영권 실패 아쉬워해’ 이런 식으로 기사화 되더라구요. 너무 어이없었지요.

●● 만약 소설가가 안되셨다면 지금쯤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보면 아마 어느 한 분야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도 관심있는 분야라 정치도 하지 않았을까 싶구요. 정치는 잘하면 그 수혜 계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라 하고자 하면 괜찮을 듯 해요. 다만 이번 생에는 운 때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소설이나 정치 모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람인 까닭입니다. 사람이 안 나오는 소설은 없습니다. 우화같은 것도 의인화된 동물이나 식물들이 나오지요. 소설은 사람 사는 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정치를 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평생 책을 읽고 쓰는 저같은 소설가에게는 특별히 가슴에 평생 남는 책을 이야기하라면 조금 난감합니다. 20대에 좋아했던 소설과 30대, 40대에 좋아하는 소설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만 최근 관심있게 즐겨보는 책은 ‘낯선 시각으로 돌아보기’가 가능한 책들입니다. 지난 학기 외대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어느 시대이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책이나 정신이 있어요.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정신이 바라보는 책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책을 선호하는 편이지요. 예를 들면 폴 존슨의 ‘모던타임즈’(편집자 주 : 20세기 세계사를 결정지은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다룬 책)라던가 막스 갈로의 ‘프랑스대혁명’(편집자 주 : 프랑스 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해부한 책)과 같은 책입니다. 막스 갈로의 이 책은 프랑스혁명을 낯선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견해와는 다른 역사적 견해를 보여주는 책이지요.

● ● 소설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소설가가 될 수 있는지 지망생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준비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설에서 스토리가 중요한 요소이고 스토리가 없으면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스토리 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요. 음악, 연극, 미술에도 다 스토리가 있으니 소설이라면 언어의 미학적 질서라든가 감흥의 섬세한 묘사, 의식의 흐름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요. 이를 안티 스토리 계열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설을 쓸건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소설을 쓰려면 통합 인문학적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순수하게 창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소설화해야 하지요. 또 하나 타인의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만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67여 작품이 16개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은 무엇인지요.

번역물 성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못내고 있거든요. 성과를 못내서 기가 죽어있습니다(웃음). 저는 책을 내면 시장에서 문화상품으로서의 성과를 선호하는 편인데 노력 대비 결과는 변변치 못하네요. 제가 쓴 작품이 신통치 않아서 그럴겠지요. 국내 번역 수준은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요. 제가 쓴 작품 중에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작품은 ‘시인’(편집자 주 : 조선 후기 ‘김삿갓’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 김병연의 삶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한 장편소설)입니다. 12개 나라에 번역이 되어 재판까지 했어요. 그래도 성과는 미미합니다. 국내 소설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성공한 케이스는 신경숙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를 스토리텔링하면 반응이 좋았는데 서양에서는 1950년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깨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원래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강화되는 것이 모계적 성향이지요.

● ● ‘부악문원’에 터 잡고 작품활동을 하신지 30년이 되어갑니다. 부악문원을 설립한 이유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악문원은 부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아악산(負兒岳山)은 말 그대로 아이를 업은 모양의 산세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설봉산의 예

전 명칭이 부아악산입니다. 부악문원은 제가 받은 독자들의 관심으로 이런 경제적 성과를 후배 소설가 양성에 되돌린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책 읽을 수 있는 방 한 칸과 삼 시 세끼 해결해주면 될 듯해서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참가토록 했지요. 문생과 객원이 있는데, 문생은 일정한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임의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객원은 커리큘럼에 참가할 필요없이 글을 쓰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객원들만 있습니다.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 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최근 10-20년 사이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다들 소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소통이고 자신의 말에 반대 하면 불통이라고 하지요. 커뮤니케이션 구도란 발신하고 교신하는 구도여야 하는데 일방적인 전달구조이지요.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신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신의 단절이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악화되어 궁극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기도 해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도 교신이 안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광기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우리 사회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메아리가 아니라 교신이 되도록 하는 것, 발신과 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이문열에게 ‘소설’이란 화두는 무엇입니까?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는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드디어 내가 머물만한 섬을 찾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설이라는 그 섬은 저를 위한 만족과 저의 기쁨을 위해 존재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작품을 써나갈 때마다 자꾸 변하네요. 지금은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양식으로까지 확장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구조에 대해서도 발언하기 시작했구요. 지금 현재 제게 소설이란 ‘내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는 양식’입니다.